



자원봉사 대통령 표창 신청 정행보살

정행보살은 지난 21일에는 대전교도소에 관세을 보살 점안식을 성황리에 마쳤고, 지난 달에는 적성의 군부대를 방문해 군복자들에게 맛있는 떡볶이도 만들어 줬다.

어려운 이들 찾아 늘 '함께'

후원금계좌 30여개... 사후시신까지 기증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지만 불교도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기 그지없어요

정행보살은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있었던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오래전에 한 사형수 아이를 만나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려주었지요. 그 아이가 사형되기 며칠전 '어머니 만나서 불교와 좋은 인연 맺으려고 여기에 제가 왔나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을때 울컥 감동이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이은자 기자

캡슐커피 국립박물관장 비스와스 박사



"부처님의 상(像)은 서기 1세기를 전후해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보리수 꼬끼리 등 여러 신별로 부처님을 표현해 승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인도의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캡슐커피박물관장인 S.S.비스와스박사는 지난 22일 중앙승가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불교미술과 건축문화'란 주제의 특별강연회에서 "부처님상은 4~5세기 굽타왕조때부터 남부유럽의 그레코 로만 문화의 영향을

"불상 1세기경 등장" 받아 본격적으로 조성됐다"고 말했다.

용인자연원에서 열리고 있는 불교방송 주최 세계불교문화전에 전시중인 부처님 사리등의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유네스코박물관협회 산하 아시아태평양박물관협회 위원장으로서 한국 박물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내한한 그는 일본의 캄보디아 앙코르 왓트 유적 발굴을 소개하면서 한국측과의 활발한 문화·학술교류를 희망했다. (재)

"마지막 명호 쓰고나니 감개무량"

만불명호경 사경 100일 임 풍 심 보살

"마지막 부처님명호를 쓰고서 그 자리에 엎드려 한참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란 말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간절한 것이 흔히 말하는 환희심인가 봅니다."

지난 22일, 서울 구룡사가 만불전 불사를 마치고 1백일간 펼쳐온 '만불명호경 사경 정진법회'를 회향한 임풍심(49.법명 덕명)보살은 "금생에 또다시 이런 법회에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다"며 감격 순간을 소개했다.

구룡사 법회는 지난 8월 15일 입재했다. 임보살은 다섯식구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바닷한 가운데서도 1백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구룡사 법당에서 사경에 입재했다. 1시간 40여분 동안 1백부처님의 명호를 사경하고 108대법회를 세 번씩 했다.

임보살이 이렇게 사경한 경전은 모두 10권. 임보살은

참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다"며 감격 순간을 소개했다. 구룡사 법회는 지난 8월 15일 입재했다. 임보살은 다섯식구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바닷한 가운데서도 1백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구룡사 법당에서 사경에 입재했다. 1시간 40여분 동안 1백부처님의 명호를 사경하고 108대법회를 세 번씩 했다.

임보살이 이렇게 사경한 경전은 모두 10권. 임보살은

합격은 작은 기쁨 어깨 무거워요

조계종 1회포교사고시 수석 이성형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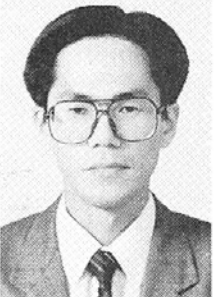


24일 강원도 건봉사에서 10권의 사경집을 모두 불살랐다.

"본래 무엇을 원하면서 사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자로서 수행으로 했던 것이었기에 시방범계 부처님께 공양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시험이 쉬웠다고 밝힌 이씨는 '초발심자의 마음으로 정진한다'는 좌우명으로 공부를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이씨는 종교생 포교를 위해 야학운영·학생법회등을 지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씨는 청소년포교을 위해 거사들을 중심으로 자녀교육모임을 만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싶다고 향후 바램을 밝혔다. (엽)



"최근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불자는 개신교의 절반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포교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청소년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평등사회의서' 기조연설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7일 타워호텔 켈코바홀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주최로 열린 '민족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했다.

월주스님은(해인승가대학 동문회장)은 12월 4일 오후6시 서울 라마다

올림픽아호텔 2층 임페리얼 A홀에서 동문지 '九光' 창간 출판기념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월주스님(등명라가사 주지)은 지난 28일 오후7시 통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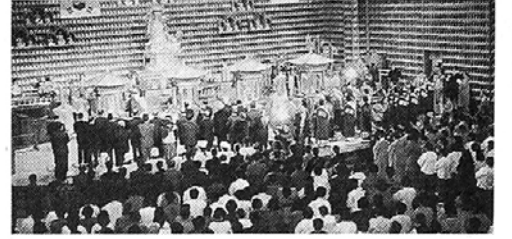
진천군 원용사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사경회향법회를 봉행한다.

가사불사·고촌천도법회 봉행

지홍스님(설악산 신홍사 주지사)은 오는 12월 3일 오전10시 가사불사 및 선방부도 유주모주교촌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중요무형문화재 영산각법 50호 일용스님등 이수자 스님들이 집전을 맡는다.

'불교인의 자세' 주제 법문

청우스님(등명라가사 주지)은 지난 28일 오후7시 통도사



삼광사 53불 대탑 진신사리봉안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춘광스님)는 지난 20일 8면9층 53불 대보탑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중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윤덕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이날 봉안법회는 1부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복장성불만안식에 이어 2부 대법회가 봉행됐다. 53불대보탑에 봉안된 진신사리는 총7과로써 미얀마에서 4과 인도에서 3과를 모셔왔



교각스님 구도소설 '대륙의...' 출판회

중국에서 지장왕보살로 숭앙받는 교각스님의 구도일생을 소설로 엮은 <대륙의 신라왕자>출판기념법회가 지난 21일 송현로에서 열렸다. 중국구화산장장 인덕스님을 비롯 보광(동국대 1백주년기념사업본부장) 세민스님(수안사 주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무주스님(우리출판사 대표)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지장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



장승문거사 3주기 추모법회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지난 21일 오후4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장승문거사 3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법회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 총지중 효강통리원장, 장상건 대원장사 이사장 및 유가족, 박은근 대원회이사장, 진흥원 구분회감사, 대원법회 이상우 회장, 대원불교대학 허성구학장, 불교방송 구영선이사, 불교TV 이태행본부장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출판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해담스님)이 창립 5주년을 맞아 펴낸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상·하)' 출판기념법회가 지난 18일 오후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조계종 총회 의장 설정스님, 해인사 주지 지관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스님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95 KSW 아·태대회 참석

진철스님(통도사 자비원 원장)은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95 KSW 아태지역대회에 참석했다. 이어 뉴질랜드 호주등지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견학하고 28일경 귀국할 계획이다.

독일 광범사초청 설법

영달스님(부천석왕사 주지)은 지난 19일 석왕사 독일본원 광범사 초청법회에서 '인생과 불교'를 주제로 설법을 했다. 이날 법회에는 파리 길상사 지묵스님과 조명훈 박사도 동참했다.

이호우시조문학상 수상

이상범씨(시조시인)는 이호우문학기념회가 제5회 이호우시조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5일 오후4시 대구 모산학술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작품은 시조시화집 <오두막집 (행)>

학업경 사경회향법회

석가산스님(원용사 주지)은 96년 1월 16일 오전11시 충북 1만원. (02)741-4696-7

▲원불전 불인물상 작품공모 =동국대(총장 송석규)는 96년 개관예정인 학술문화회관 원불전에 봉안할 불상모형작품을 공모한다. 서류접수마감은 12월 15일까지. (02)260-3791-5

▲무의탁 노인위안 장치=광교향기롭게 살아가기운동본부(본부장 윤청광)는 12월 10일 파주 대비양로원에서 무의탁노인 위안잔치를 펼친다. 동참금

부산 포교원에서 개최된 부산 거사리회 정기법회에 참석 '오늘을 사는 불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했다.

불교문화원 창립 2년 직담회

홍우홍씨(한국불교문화원 원장)는 오는 28일 문화원 창립 2주년을 맞아 '한국불교문화단체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갖는다.

이호우시조문학상 수상

이상범씨(시조시인)는 이호우문학기념회가 제5회 이호우시조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5일 오후4시 대구 모산학술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작품은 시조시화집 <오두막집 (행)>

이호우시조문학상 수상

이상범씨(시조시인)는 이호우문학기념회가 제5회 이호우시조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5일 오후4시 대구 모산학술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작품은 시조시화집 <오두막집 (행)>

이호우시조문학상 수상

이상범씨(시조시인)는 이호우문학기념회가 제5회 이호우시조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5일 오후4시 대구 모산학술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작품은 시조시화집 <오두막집 (행)>

“원용결사 347일 만에 세계 최초로 80화엄경 사경이 끝났습니다!!”

※ 이는 석가산 큰스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맹 정진의 크나큰 수행력에 의한 결정체입니다.

※ 이는 세계 불교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이며 한민족의 보물이며 한국불교의 대작불사입니다.

※ 대방광불 화엄경 80권은 부처님 말씀의 진수이며 대 원용무애의 최고 경전입니다.

※ 석가산 큰스님께서 제1차 원용결사를 설정하시고 장좌불와와 묵언을 하시면서 하루에 18시간을 사경하시고 2시간을 참선, 2시간을 앉아서 주무시는 법인으로서의 상상할 수 없는 수행력으로 정진을 하시었습니다.

※ 석가산 스님께서 1자 쓰고 1번 절하고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아미타불, 화엄성증을 청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경전의 공덕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량의 공덕장입니다.

※ 석가산 큰스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에 형언할 수 없는 마장 장애를 뛰어 넘고 크나큰 서원을 성취하시었습니다.

세속 유발 제자 각국 대표

- 중화민국: 진혜향, 진혜여, 등혜인 ●싱가폴: 임준명 ●미얀마: 슈완 ●대한민국: 김능혜 ●말레이시아: 마진 ●태국: 구네 ●스리랑카: 프란왕카 ●화엄사경회: 손무량광

한국불교대학,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현수복지재단, 보리정사, 원용사, 영산불원, 서림선원, 석굴암, 가야정사, 대원사, 극락정사, 정혜사, 지장정사, 불광사, 시흥5동 복지관, 화승 어린이집, 배꽃 어린이집, 강동경찰서 경승회, 꿈나무 어린이집

귀의 삼보하옵고!

일년여 전 불기 2538년 12월 15일 구생종찰 원용사 건립 발원을 위하여 묵언 장좌불와와 대방광불 화엄경 80권을 사경코자 원용결사 용맹정진에 돌입하셨던 태화당 석가산 큰스님께서 화엄경의 대석학으로서 묵언과 장좌불와의 용맹정진으로 대방광불화엄경의 80권 사경 회향의 대위업을 한국불교사에 뚜렷이 밝히시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공덕을 널리 회향하고자 큰스님의 허락을 받아 석가산 큰스님 문도회에서는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의 보개회향에 동참하시는 신도님들의 명단을 등재하여 무량한 공덕장을 성취케 하고 석가산 큰스님께서 사경하신 보현행원품(영인) 1권씩 드러 법 보장으로 소장하여 모든 업장을 소멸케 하고자 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화엄경 사경 회향 대법회를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무 동참하시어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시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회향일시: 1996년 1월 16일(음력 11월 26일) 오전 11:00시
장 소: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두타산 원용사
연 락 처: 서울 424-6637~8, 422-7799 / 진천 0434-32-0108
접수마감일: 1996년 1월 10일
동 참 금: 3만원
※ 특히 대학 입시생과 영가도 접수하시면 좋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석가산큰스님문도회일동합장